

# 단 한 사람을 위한 죽 한 그릇의 위안

한 그릇의 밥이 갖는 위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. 부모님이 계시는 집을 떠나온 뒤, 늦은 밤 '혹사'와 '공복'의 몸을 이끌고 골목을 걸어갈 때 한 그릇의 밥이 갖는 그 위대함을 깨닫곤 한다. 아무 집의 대문이나 열고 들어가 밥 한 그릇을 구걸해 허기를 위로받고 싶을 만큼 절절한 깨달음이다.

그런데 한 그릇의 밥을, 온전하게 익은 밥알들을 씹고 삼키는 것마저 힘에 부칠 정도로 고단하다면... 식도로 밥알을 넘기는 것조차...

여기, 그런 이들을 위한 "죽 한 그릇 / 한 그릇의 죽" 같은 시집이 있다. "은갓 생고깃집 주물럭집 수산횃집이 난장을 치는 사이로" 기어이 비집고 낸 죽집에서 쏜 죽. 불을 약하게 켜놓고, 천천히, 슬바닥에 늘어붙지 않도록 내내 주걱으로 휘저어가며 쏜 정성의 죽. 이진명 시인의 《단 한 사람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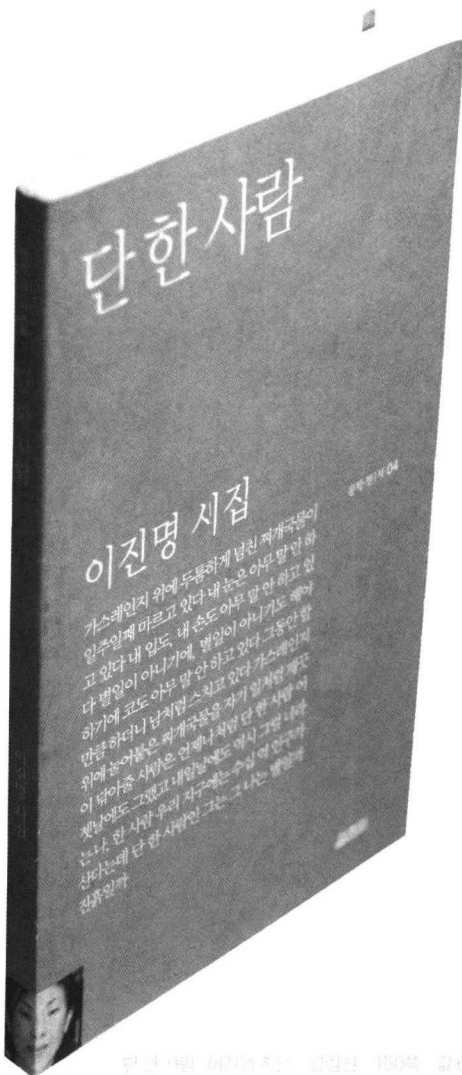
얼마나 밥을 먹어야/앞으로 얼마나 밥을 먹어야/죽을까/(...) / 저녁 또는 점심/소도구 앞에 밥공기가 하나 놓인/일인 무언극처럼 우스꽝스러운 행위/이 밥 먹는 일 언제나 끝날까/(...) / 밥을 떠먹는 손이여/결국 죽음의 손길이어

〈밥〉중에서

밥 먹는 일/행위의 고달픔과 지난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시인이지만, 시인은 정작 내가 아닌 너/그에게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을 차려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. 어느 순간이나 시인은 쓰린 것들을 한없이 안쓰러워하며 누이와 어머니의 눈길로 바라봐 주지 않았던가. 밥이 시인에게 "언제 끝날지 모르는", "결국 죽음"에 이르러야 내려놓을 수 있는 형벌 같은 것인지 몰라도, 시인이 지은 밥은 시름시름 꺼져 가는 생명에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보약이었다.

그러니 시인이 오랜 세월 밥을 짓는 일보다 더한 정성으로 쏜 죽들의 힘은 오죽하겠는가.

이진명은 흰죽이든, 검은깨죽이든, 야채죽이든, 녹두죽이든, 한 그릇의 죽을 떠돌이 개와 늙은 가로수와 쭉그렁이들에게 바치고 싶다고 기꺼이 말한다. 시인의 바람대로, 시인의 맑은 눈과 잔잔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죽 한 그릇을 먹는 듯한 위로를 느낀다.



단 한 사람 이진명 시집 150쪽 1500원

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, 1998년 〈문학동네〉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. 최근 첫 소설집 《투견》을 냈다.

혹사와 공복 년놈의 세상/죽사발을 만들고 말겠다 이빨 가는 사람/웁아, 죽사발을 만들어 주세요/죽사발이 많아졌어요/이빨 상하지 않는 연한 음식 새알죽 가득 떠올릴께/소매를 잡아끌리라 //속이 연하고 조용해지면/생각이 높아지는 법//생각이 높아지면/모든 지상의 것들에게로 접으로 스미리//내 죽집 앞을 사뭇기 웃거리며 부딪는 떠돌이 개야/내 죽집 유리창에 맨날 늘어진 입을 매는 늙은 가로수야/초대하리라 이 쪽그렁이들아, 나의 美食 녹두죽을 특별히 별께

〈죽집을 났으면 한다〉 중에서

《단 한 사람》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시를 쓰고,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시집을 내다가 갈 것이라는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. 시인은 이미 두 권의 시집 《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》와 《집에 돌아갈 날짜를 세어보다》를 낸 적이 있다. 순하고 고요하지만, 고사리줄기처럼 연하면서도 쓰고 질긴 집요함이 숨어 있었다고... 나는 시인의 시들을 기억한다.

두 번째 시집을 내고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시인은 끊임없이 별과 진흙 사이를 오르고 내리고 그 사이에 고름처럼 생겨난 고달픔을 자연스레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수납하게 되었다. 별과 진흙은 하나의 낱말일 뿐인지 아닌가, 라는 경지에서 세 번째 시집을 끌어올렸다.

흰 가제 손수건/그때 이미지가 흰 가제 손수건 같았노라는/결혼해서 애 낳기 십여 년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//(...)//예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을/흰 가제 손수건 같다고/십여 년이 지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/더욱 흰 가제 손수건만 같아, 그래서 부끄러웠고

〈바보, 흰가제손수건〉 중에서

새들이 저마다 제 울음소리를 내듯, 시인들마다 시인들마다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다. 이진명은 시인은 흰 가제 손수건 같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이다. 첫 시집을 내놓던 십여 년 전에도 그랬고, 지금도 그렇다. 할머니나 어머니나 누이의 가난한 지갑 속이나 웃웃 주머니 속에, 암전히 접혀서 들어 있을 것만 같은 흰 가제 손수건. 빨랫비누 냄새가 풍기던 흰 가제 손수건은 눈부시게 빛나지는 않지만, 정성과 애뜻함과 배꽃의 이미지가 묻어 있는 은유의 물건이기도 하다.

흰 가제 손수건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/여고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다니던 초년 시절/핸드백에는 일 어렵고 부끄러워/흰 가제 손수건에 차비를 써서 손에 꼭 쥐고 다녔지요/흔 할마시처럼

〈바보, 흰가제손수건〉 중에서

흰 가제 손수건을 가슴 속에 꼭 품고 있는 시인에게는 누구나 단 한 사람이다. 얼룩과 상처를 닦아줄 치유의 힘을 지닌 단 한 사람이며, 곱게 떠받들고 모셔야 할 단 한 사람이다. 별이기도 하고 진흙이기도 한 단 한 사람이다.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존재하는, 존재의 가치가 의심받아서 안 되는, 귀한 者들인 것이다.

가스레인지 위에 늘어붙은 찌꺼기를 지기 일처럼 깨끗이 닦아 줄 사람은/연체나처럼 단 한 사람/어젯날에도 그렇고 내일날에도 역시 그럴/너리는 나, 한 사람/우리 지구에는 수십 억 인구가 산다는데/단 한 사람인 그는/그나는/별일까/진흙일까

〈단 한 사람〉 중에서

이진명 시인은 간판들이 난장을 치는 사이로 기어이 문을 연 죽집에서, 쪽그렁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천심<sup>天心</sup>으로 흰죽을, 검은깨죽을, 야채죽을, 녹두죽을 부지런하게 쏜다. 행인들의 허기지고 쓰린 속을 달래줄 죽들이다. 단 한 사람을 위한, 단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,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한 죽!

한 그릇의 美食, 따뜻한 죽!

시가 시인의 존재를 규명하고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, 시인이 고단하게 응시하는 대상과 시를 나누는 이들의 존재까지도 규명하고 살리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. 새삼 생각한다.